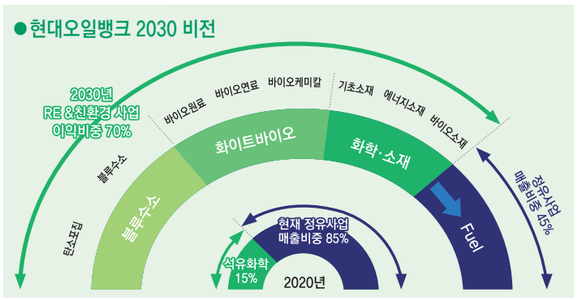
블루수소·친환경 소재로 '그린성장' 나선다

현대오일뱅크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탄소중립 그린성장'을 선언하고, 친환경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의 체질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사업 성장에 따른 탄소 배출 증가량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해 미래 탄소배출량을 현재 수준보다 대폭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유사업 매출 비중도 2020년 85%에서 2030년 40%대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국내 정유, 석유화학 회사 중 이런 적극적인 친환경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표한 곳은 현대오일뱅크가 유일하다.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대산공장 내 수소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20만 톤(연간)을 전량 회수해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정유사 최초로 100% 블루수소를 생산한다(위 사진).
사진제공 | 현대오일뱅크

정유사업 매출 비중 40%까지 축소
수소생산 시 이산화탄소 전량 회수
국내 최초로 100% 블루수소 생산
탄소 활용한 친환경 소재개발도
기존 공장 운영, 친환경 방식으로

현대오일뱅크 3대 친환경 미래 사업

블루수소 사업 추진
2025년 블루수소 10만톤 생산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발전

화이트 바이오 사업 진출
2023년 2세대 화이트 바이오 진출
2030년 100만톤 바이오 생태계 구축

친환경 화학·소재 사업 확대
HPC(중질유 석유화학시설) 프로젝트 연내 상업 가동
화학 소재 사업 확대

●친환경 미래 사업에 적극 투자

친환경 성장 목표의 상당부분은 신사업 진출로 달성한다. 현대오일뱅크는 3월 블루수소, 화이트바이오, 친환경 소재분야를 3대 친환경 미래 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다.

이중 블루수소와 친환경 소재분야는 '탄소중립 그린성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블루수소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수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만든 수소다.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배출되는 그레이수소나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져 제조단가가 비싼 그린 수소와 비교해 각각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 에너지원 중 하나로 손꼽힌다.

현대오일뱅크의 블루수소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국내 최대 액체탄산제조업체인 신비오케미칼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충남 대죽일반산업단지에 산업용 탄산가스와 드라이아이스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새 공장에는 현대오일뱅크 수소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20만 톤(연간)이 회수되어 원료로 공급된다. 또한 기존 탄산가스 수요처인 선도화학과도 협력을 강화해 이들 업체에 공급하는 탄산가스 규모 역시 지난해 9만 톤(연간) 수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36만 톤(연간)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내 정유사 중 최초 100% 블루수소 생산

정유공장은 탈황공정(수소를 이용해 불순물을 처리하는 공정) 등에 투입하기 위해 LNG,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LPG 등을 원료로 수소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연산 20만 톤 규모의 수소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연간 약 36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신비오케미칼과의 사업협력을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수소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전량 회수해 '액체탄산 생산공장'에 원료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국내 정유사 중 최초로 100% 블루수소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는 2025년까지 연간 10만 톤의 블루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와 연료 전지 발전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블루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고순도 정제설비, 수소 충전소 추가 확보, 연료전지발전사업 진출 등 판매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고 있다"며 "블루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이 분야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활용한 친환경 소재개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연구기관, 협력 업체와 공동 연구를 통해 공장 가동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과 메탄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탄산칼슘은 시멘트 등 건설자재와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메탄올은 차세대 친환경 연료와 플라스틱, 고무, 각종 산업기자재를 만드는데 쓰인다.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상반기부터 이들 기술을 순차적으로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 예상 감축량은 연간 54만 톤에 이른다. 또한 상용화가 완료되는 2030년부터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개선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기존 공장 운영 방식도 친환경으로 전환한다. 현대오일뱅크는 2024년까지 현재 보유 중인 3기의 중유보일러를 LNG 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한전 등 외부에서 공급받는 전력도 2050년까지 전량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대체해 연간 총 108만 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공정을 최적화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해외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도 투자해 추가 탄소 배출권도 확보할 계획이다.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는 "블루수소, 친환경 소재, 화이트바이오 등 3대 친환경 미래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탄소배출이 대량 발생되는 기존 정유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2030년까지 영업이익 기준 30%까지 줄일 것"이라며 "기존 정유 공장은 미래 신사업에 친환경 원료와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RE(Renewable Energy) 플랫폼'으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6회 컴플라이언스 위크' 진행

임직원 준법의식·준법문화 생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신현우)는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와 준법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제6회 컴플라이언스 위크(Compliance Week)' 행사를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 주제는 '6월에 떠나는 준(JUNE)법(法) 여행, with ESG'다.

임직원들은 준법경영과 ESG경영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준법&ESG 슬로건 공모전', 'OX퀴즈'와 '온라인준법교육 어플 인증하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부패방지·하도급',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금지' 등 법률 주제를 쉽고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준법지원인 이채준 상무는 "임직원 준법의식 고취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및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23일 (수) 음력: 5월 14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토끼** 행운색:적색 길방:남	**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곧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떳떳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감언이설에 조심만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인간관계보다는 일에 집중하라.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다. 횡재수가 있다.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진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남자 조심하라.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양** 행운색:흰색 길방:서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길방:북	**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돼지** 행운색:흰색 길방:서
옹달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정신적으로는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바빠지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날이다. 움직여라.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침착하게 일에 임하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하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도전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운을 갖게 된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학업,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망언 하면 자칫 일이 커지게 된다.

포스코, 상생형 물류 플랫폼 제공
중소기업 수출 화물 함께 선적한다

포스코-무역협회 MOU…고객사 외에도 지원

최정우 회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해운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선박 부족 및 운임 급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상운송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포스코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2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포스코 김광수 물류사업부장,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 민관 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김미애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는 중소 고객사들이 수출 물량이 적어 선박의 적기 확보가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지불해야 해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객사의 소량 화물도 포스코 물량에 함께 선적할 수 있도록 '수출물류 합적 플랫폼'을 개발해 금년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수출물류 합적 플랫폼'은 합적을 희망하는 수출기업이 선사에 수시로 연락해 선적 일정을 확인하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스케줄 확인부터 합적 신청까지 온라인에서 한번에 가능하도록 개발한 포스코의 상생형 물류 플랫폼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포스코 철강제품과 함께 합적한 고객사 물량은 4만 톤에 달한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포스코와 직접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도 플랫폼을 개방할 예정이다.

연간 1500만 톤 규모의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바탕으로 주요 국적 선사들과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포스코는 글로벌 물류 인프라 망을 적극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합적 대상 화물은 철강류 등 벌크 화물이며, 운송 지역은 세계 7개 권역 80여 개 항만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출 물류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는 이번 협력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출 물류 상생'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 포스코 물류사업부장은 "포스코가 무역협회와 함께 정부의 물류 대란 위기 극복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사가 보유한 다년간의 해상 운송 경험과 물류 인프라 자산을 중소 수출기업과 나눠 국가의 무역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중소 수출기업과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시민 경영 이념을 더욱 공고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오늘의 날씨 23일(수)

서울 60/60	18 / 26	인천 60/60	19 / 25
춘천 30/30	17 / 26	강릉 60/30	17 / 22
대전 60/60	19 / 25	전주 60/60	19 / 26
광주 30/70	19 / 25	대구 60/60	17 / 24
부산 30/30	18 / 24	창원 30/30	18 / 24
제주 0/20	21 / 26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0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